

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.

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,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-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.

cf88627575be416f6c986dc5ca0fc9f3acd88f3eb07cbe7bf4cec1970d2f5f60

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,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.

- **주요 뉴스:** 미국 주요 지역 연은 총재, 델타 변이에 따른 테이퍼링 경로 조정은 불필요
 - 미국 2/4분기 성장률(수정치), 6.6%로 속보치(6.5%) 상회. 개인소비 등이 호조
 - 미국 주식투자자, 팬데믹 이후 최초로 보유주식 레버리지 거래(Margin debt) 축소
 - 헤지펀드 Bridgewater, 연준의 테이퍼링은 시장 전망보다 일찍 시작될 전망
 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일부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 강화
주가 하락[-0.6%], 달러화 강세[+0.3%], 금리 상승[+1bp]
 - **주가:** 미국 S&P500 지수는 테이퍼링의 조기 시행 가능성 등으로 매도세 증가
 유로 Stoxx 600 지수는 독일 9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부진 등으로 0.3% 하락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증시와 같은 이유 등으로 매수세 강화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2%, 0.1% 하락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잭슨 홀 미팅 경계감 등으로 2주 만에 최고 수준
 독일은 잭슨 홀 미팅 앞두고 매수 포지션 청산 등으로 1개월 만에 최고치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71.2원, +0.2원) 포함, 한국 CDS 포함

		8/26일	8/25일	전일대비			8/26일	8/25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470.0	4,496.2	-0.58%	국채 금리 10y	미국	1.35%	1.34%	1bp
	유럽	470.34	471.84	-0.32%		독일	-0.41%	-0.42%	1bp
	중국	3,501.7	3,540.4	-1.09%	CDS 5y	한국	18bp	18bp	0bp
	일본	27,742	27,725	0.06%		중국	35bp	35bp	0bp
	한국	3,128.5	3,146.8	-0.58%	위험 지표	EMBI+	-	354	-
달러지수	93.06	92.83	0.25%	VIX		18.84	16.79	12.21%	
유로화	1.1752	1.1772	-0.17%	WTI유		67.42	68.36	-1.38%	
환율	엔화	110.09	110.02	-0.06%	원자재	구리	423.2	426.8	-0.84%
	위안화	6.4818	6.4757	-0.09%		금	1,792.4	1,791.0	0.08%
	원화	1,170.5	1,168.1	-0.21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의 주요 지역 연은 총재, 델타 변이에 따른 테이퍼링 경로 조정은 불필요

- 세인트루이스 연은 블라드 총재는 경제가 강력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. 2022년 1/4분기 테이퍼링 종료를 통해 경기 과열을 방지해야 하며, 이후 인플레이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리인상 관련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
- 댈러스 연은 카플란 총재는 최근 경제회복 속도가 10월 혹은 그 이후 테이퍼링 시행이 가능한 여건을 제공한다고 평가. 또한 9월에 테이퍼링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부연. 이번 발언은 지난 주 델타 변이의 영향을 우려한 것과 다소 상이
- 캔사스시티 연은 조지 총재도 델타 변이가 경제 전망과 고용 증가에 위험 요소이나, 테이퍼링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.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며,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속도나 종료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첨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2/4분기 성장률(수정치), 6.6%로 속보치(6.5%) 상회. 개인소비 등이 호조

- 상무부는 GDP의 70%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11.9% 늘어 2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, 기업 설비투자는 9.3% 증가했으며 기업이익도 9.2% 늘어 자본이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 투입되고 있다고 확인
- Bank of America의 Michelle Meyer는 델타 변이와 공급 병목 현상에도 경제 여건은 양호했고 수요도 강하다는 사실이 나타났다고 평가

■ 미국 주식투자자, 팬데믹 이후 최초로 보유주식 레버리지 거래(Margin debt) 축소

- 금융산업규제기구(FINRA), 개인·기관투자자들의 주식매입을 위한 보유주식 활용 차입 규모는 6월 \$8820억→8440억으로 감소해 팬데믹 이후 최초 감소 기록
- 골드만삭스, 모건스탠리도 최근 수 주간 고객 헤지펀드들의 레버리지 축소 확인. BoNY Mellon의 Mark Aldoroty는 나스닥 상장 중국기술주 급락(2월 고점대비 -46%)과 경기둔화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
- 주식 마진거래는 규모 파락이 가능하나, 주식스왑 등 헤지펀드들이 자주 활용하는 여타 레버리지 수단에서 발생하는 중요 위험을 파락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

■ ECB 7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, 일부 위원은 새로운 통화정책 전략에 이견

- 해당 위원들은 통화정책 전략의 수정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피력. 한편 이번 의사록에는 테이퍼링 언급이 없었으며,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12월이 되어야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

■ 독일 9월 GfK 소비자신뢰지수, -1.2로 전월(-0.4) 대비 하락

- GfK, 이번 결과는 예상치(-0.7)를 하회했으며 델타 변이 여파와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등에 기인. Rolf Buerkl 이코노미스트는 금년 중반 이후 가파른 물가 상승의 영향이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평가

■ 중국 상무부, 소매·무역·숙박 부문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할 계획

-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이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부문의 사업자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도록 촉구. 특히 이들 사업체에 대한 대출 중단이나 신용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

■ 헤지펀드 Bridgewater, 연준 테이퍼링은 시장 전망보다 일찍 시작될 전망

- Greg Jensen 최고투자책임자(CIO)는 미국이 강력한 경제회복을 구가하고 있으며, 높은 수준의 물가도 단기간 내 진정되기 어렵다고 진단

■ 주요 투자은행, 중국의 광범위한 규제강화는 경제성장을 저해

- Standard Chartered는 탄소감축 정책으로 관련 산업 밀집 지역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. 노무라 증권도 부동산 부문에 대한 제재는 건설 자재, 가구, 가전 산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분석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8/26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8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(만건): 35.3, 전주(34.9), 예상치(35.0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8/27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잭슨 홀 미팅, 연준 파월 의장 강연
-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, 7월 개인소비지출 물가
- 미국 7월 도매재고, 개인소득. 호주 7월 소매매출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코로나 19 델타 변이 확산, 아시아 채권시장에도 영향 - WSJ

(Delta Variant's Spread Clouds Outlook for Emerging-Market Debt)

- 시장에서는 연초와 달리 아시아 신흥국 국채 관련 낙관론이 약화. BNP 자산운용의 Alaa Bushehri는 당시 코로나 19 우려 완화로 신용위험이 축소되면서 아시아 신흥국들이 신규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에 나섰다라고 평가
- 하지만 최근 중국의 첨단 및 부동산 관련 기업 규제 등으로 아시아 채권시장에 회의적 시각이 증대. Aberdeen Standard Investments의 Mark Baker는 미국 금리 인상은 아시아 채권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

■ 잭슨 홀 미팅, 연준은 테이퍼링 외 인내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 - Financial Times

(Jay Powell must explain what patience means)

- 각국 정책입안자들은 과거 잭슨 홀 미팅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. 특히 연준 의장의 연설은 테이퍼링 지침 뿐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 제시가 수반될 필요
- 예컨대, ECB의 물가목표 2%달성 시까지 완화정책 유지 등 명확한 임계치를 정할 필요. Allianz의 El-Erian은 파월 의장이 자주 강조했던 인내심(patience)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

■ 각국 중앙은행, 디지털 통화 체계에 점진적 접근이 바람직 - Financial Times

(Central banks need to go slow on digital currencies)

■ 세계적 경기부양책 홍수, 지속 판단에 연준의 역할이 중요 - 블룸버그

(Is This the Last Charge of the Stimulus Brigade?)

■ 노동력의 자본 우위 역전,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가능성 - Financial Times

(Labour shortages: pandemic happenstance, plus market failure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ikyoon@kcif.or.kr